

포천사회 知識人 ③⑥

대진대학교 이시진 교수

포천시 情報化 전략계획 수립 시급

대진대학교 홈페이지 홍보 첨병으로 업그레이드

“지역정보화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사회의 필요요인을 약속하는 정보화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해당지역의 행정, 사회생활, 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생산,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미디어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정보자체를 그 지역의 목표나 특성에 맞게 체계화하여 지역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전체의 정보화와 연계됨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는 정보화와 지역균형발전 달성에 기본 목적을 설정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의 하나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자원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정보화를 추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정보화로서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 낙후지역정보화로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정보화는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여건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 버섯, 포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성화 한다면 전량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와같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포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전문가를 활용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한다. 포천시 지역대학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전문가를 활용해 나가야 한다. 정보화 사업진단을 실시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 교수의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다. 구체적으로 분산 및 운영체제를 전공했다.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윈도우운영체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PC에서 윈도우, 중대형 컴퓨터 유닉스, 대형·중형·소형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

이 교수는 서울출생이며 대조초등학교, 대성중·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3월1일 대진대학교에 부교수로 부임하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 운영체제론, 유닉스 시스템, 시스템프로그래밍, 어셈블리 언어 등의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전공과 관련하여 포천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것은 포천시의 정보화 계획 수립과 정보화 시스템 도입 분야에 자문 및 심사 활동이 가능하며 정보화 관련 된 것을 다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포천시의 실질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교수의 전문성을 잘 활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진대학교 정보전산원 원장으로 활동중인 이 교수는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1억2천여만원을 들여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진대학교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좋은 내용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진대학교를 홍보하는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좌우명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데 있어서 정직하게 공부하고 솔직하게 노력하길 바란다.

전공과 관련된 사회활동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 채점위원, 5급 공무원시험 검정 채점위원,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관련한 학교행사로는 플래쉬 경진대회, 홈페이지 경진대회가 있으며 정보전산원 근로학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실습 활동을 하고 있다.

포천신문이 지역정보화활성을 위해 포천시의 노력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처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 포천시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정보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관광도시,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특히 각 읍면동사무소와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정보화 인프라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등학교 정보화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정보화 활용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방과 후 특기적성 활동을 대진대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다. 그것은 대진대 연합동아리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역정보화과제 실현을 위해 포천시 담당자와 만나 구두로 이야기 한 바 있다고 밝히는 대진대학교 이시진(43·사진) 교수의 지역정보화 과제 실현의 당위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 교수는 현재 대진대학교 정보전산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대진대학교 정보환경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정보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천시의 구체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

현재 대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학기에 실시하는 플래쉬 경진대회, 2학기에 실시하는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교수는 포천시의 경우, 관광도시로서 포천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정보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광인프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천의 관광자원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포천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삼, 사

초·중·고 컴퓨터교육 대학연합동아리 봉사활동으로 가능

“지역낙후 公職사회 가장 큰 원인”

지역발전 위해 국회의원 시장 등 협의체 필요 지역정치인 갈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2007년도 포천시 본 예산규모는 3천222억7천7천여만원이다. 매년 2회 혹은 3회정도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중에서 인건비와 소모예산으로 분류되는 경상예산은 798억원으로 전체에서 24.8%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해 사업예산이 2천200억으로 68.3%를 차지한다.

이밖에 체무상환 79억5천800여만원, 예비비등 14억4천800여만원 등으로 2007년도 포천시 세출예산이 편성돼 있다.

연간 예산 규모면에서 보면 포천시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물론 도시화가 마무리 된 지역, 즉 서울시나, 부산시 혹은 광역시에 속하는 자치구 예산은 주로 사회복지 예산에 초점을 맞춰 편성한다. 또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사회개발비나 혹은 사회복지 예산이 많지 않아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이들 지역에 비해 도시화나 사회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인 포천시는 각종 개발에 따른 사업비 혹은 관련 경비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포천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양주시의 경우도 2007년도 세출예산은 3천64억6천800여만원으로 200여억원 정도가 포천시 보다 오히려 예산 규모가 적다.

그럼에도 지역개발이나 공직사회 분위기는 포천시보다 양주시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포천시와 양주시는 동일한 수도권 지역에 포함 되어 있고, 동일한 규제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1월부터 2월초까지 포천시 14개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시정 설명회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지역이 낙후된 것은 정부정책 탓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기존 지역정치인, 배타적인 시민의식으로 인해 지역이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포천시민들은 박윤국 시장의 발언에 대해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천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포천지역의 발전이 더딘 것은 박 시장이 지적인 기존 정치인과 배타적인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하지만 배타적 시민의식은 많이 없어졌다”면서 “지역발전이 낙후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홀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포천시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허가받는데 너무 힘들었다”면서 “화감에 강원도 전화 한통화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공장까지 찾아와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물론 박 시장의 발언 내용처럼 그동안 포천지역이 개발권역에서 소외된 것은 정부의 수도권정책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포천시를 대표해 온 기존 정치인 혹은 일부 시민들의 배타적인 의식도 있다고 봐야 할 것

이다.

박 시장의 말처럼 포천시에는 2천100만명이나 되는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전협정 이후 지난 50년 이상동안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지적한 사람이 없다.

기존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급급했을 뿐이다. 시민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까지도 하면서도 간접적인 피해로 지역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군부대 사격장, 수도권경비계획 혹은 23년 동안 묶여온 성장관리권역 문제 등에 대해서는 누구 한사람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낙후된 것을 정부정책이나 기존 정치인, 배타적 시민의식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발전이 낙후된 원인은 다른 요인에서도 찾아야 하겠지만, 포천시 공직사회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공직사회 몫이다. 과거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각기 지역을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또 각종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출신 인사를 총동원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대변되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대해 포천시 공직사회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 모셔오기 정책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역발전이 낙후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는 공직사회 분위기는 개선되어야 한다.

수도권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법령은 포천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면 동일한 법령이 적용된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수도권 지역, 즉 경기도 권역에서 가장 개발속도가 가장 더딘 지역이다. 또한 포천시는 경기북부 권역에도 개발이나 발전속도가 늦다.

인근 양주시의 경우 비록 포천보다 예산규모는 적지만,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은 남다르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을 한자리에 모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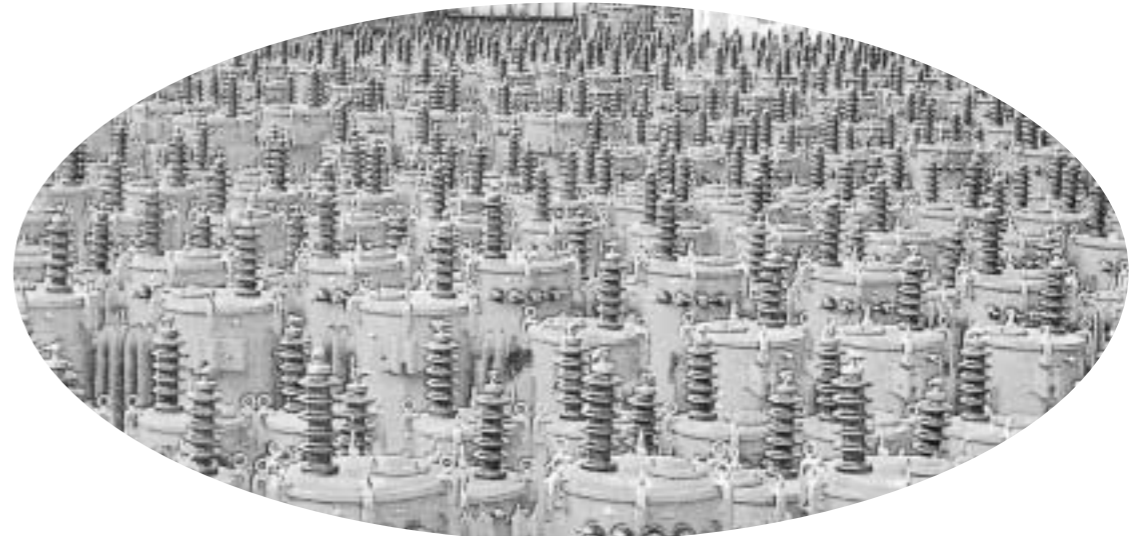
2007년도 양주시 예산항목 가운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의 간담회 자료작성 30부*6회에 54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또 의원과 의원무협외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포천시 자체 노력만으로 힘들다. 포천시 재정자립도는 32%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포천시장과 국회의원간의 갈등관계는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도 시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간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협력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등관계로 인해 현안사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산업기기만을 보급하고 있는 삼흥ENG

최첨단 기술도입으로 완벽한 제품만을 고집!!



■ 생산품목

- 대형 변압기
- 중형 변압기
- 전력용 변압기
- 배전용 변압기
- 산업용 변압기
- 기타 특수 변압기

■ 취급품목

- O·T 판매 및 여과 교체

TEL (031)962-6452 / FAX (031)968-0142 대표 : 김형수